

작년 기업결합, 건수 9.7% ↓ vs 금액 32.2% ↑ ...외국기업 늘어

공정위, 2023년 기업결합 동향 분석 발표
작년 기업결합 건수 927건...전년비 9.7% ↓
MS-블리자드 인수 등 대형 결합 탓 금액 ↑

지난해 고금리 기조와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면서 기업간 주식취득이나 합병, 영업양수 등이 2년 연속 감소했다. 다만 대규모 국제 기업결합 건의 영향으로 기업결합 금액은 전년 대비 32.2% 증가한 431조원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신시장에 진출하는 등 활로 모색에 적극적인 모습이 두드러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발표한 '2023년도 기업결합 동향 분석'을 보면 지난해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는 927건으로 전년도 1027건 대비 9.7%(100건) 감소했다. 하지만 기업결합 금액은 전년도 325조 5000억원에서 431조원으로 32.2% 늘었다.

이중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739건으로 전년보다 15.6%(137건), 금액은 54조 9000억원으로 5.3%(3조1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231건, 29조8000억원 규모로 전체 기업결합의 54.3%를 차지했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188건으로 24.5%(37건), 금액은 376조2000억원으로 40.3%(108조5000억원)나 증가했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은 "기업결합 금액 증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89조원), 브로드컴의 브이엠에어 인수(78조원), 뉴몬트의 뉴크레스트 인수

(49조원) 등 외국기업의 대규모 인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신고 증가는 국제기업결합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 증가, 국내 매출액 기준(300억원)을 충족하는 외국기업의 증가 등에 따른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삼성SDI와 GM의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등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인수합병 건수는 지난해 19건으로 전년도 11건에 비해 8건 늘었다. 계열사간 결합은 221건으로 10.7%(62건) 감소했고, 비계열사 간 결합은 518건으로 10.7%(62건) 줄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9건으로 32.3%를 차지하고, 서비스업이 628건으로 67.7%를 차지했다. 제조업에서는 전기전자(86건), 기계금속(85건) 분야의 기업결합이 많았고 서비스업에서는 금융(216건), 정보통신방송(83건) 분야에서 기업결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는 39건을 심층심사했고 이 중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브로드컴의 브이엠에어 인수' 등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또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위반한 23건에 대해 과태료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2차전지 시장은 전기차 수요 증가 등에 따라 급격히 성장한 시장으로서 국내외 기업들은 수직계열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공급망 재편, EU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폐배터리 재활용 등 다양한 목적의 기업결합이 이뤄졌다. 또한 신용정보업의 경우 진입규제 완화로 인해 금융회사가 아닌 사업자들이 신규로 진입할 수 있게 되면서 통신 3사 등 5개 사업자가 합작회사로 개인신용평가회사를 신설했다. 글로벌 빅테크 분야에서는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블리자드(Activision Blizzard)의 기업결합(89조원), 브로드컴(Broadcom)과 브이엠에어(VMware)의 기업결합(78조원)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결합이 심사됐다. 공정위는 늘어나는 국제기업결합 심사에 대비해 2022년 말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해 심사역량을 제고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금년 8월부터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하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맞춰 기업결합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하는 한편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는 엄중히 대응해 시장경쟁을 보존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해나갈 예정이다. 오유나기자



롯데백화점, '김하성, 오타니 X 뉴발란스' 팝업행사
롯데백화점이 21일까지 잠실 롯데월드몰 1층 아트러움 광장에서 '김하성, 오타니 X 뉴발란스' 팝업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팝업행사는 '김하성', '오타니 쇼헤이'의 '미국 프로야구 리그'(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를 기념해 다양한 상품과 체험 콘텐츠를 선보인다. 팝업 오픈을 기념해 김하성과 오타니 한정판 '외판'을 판매하며 원하는대로 디자인할 수 있는 'DIY 이벤트'도 진행한다. 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서울시리즈 직관 티켓(4장)', '김하성 선수 친필 사인 액자(15개)'를 증정한다. (1인 1장 한정, 중복 증정 불가). 사진은 모델이 행사를 소개하는 모습.

골프존마켓, '최대 60%' 할인행사

골프존커머스가 운영하는 골프용품 전문매장 골프존마켓이 내달 7일까지 국내외 인기 브랜드의 골프용품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골프대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골프대전은 골프존마켓이 마련한 상반기 최대 이벤트로, 골프존마켓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된다. 올해 새롭게 출시된 골프클럽을 비롯해 골프백, 골프화, 골프장갑, 골프볼, 거리측정기 등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특별 할인가와 클리어런스 세일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구매 금액대별 마일리지 적립과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제공되는 경품 응모 이벤트 등의 혜택도 함께 만날 수 있다. 골프클럽은 미즈노 JPX 919 단조 아이언(스틸·8아이언)과 브리지스톤 V300 8(스틸·8아이언)이 세일 특가로 준비됐다. 미즈노 JPX S30, PRGR 01&02 아이언, 에델 SMS&SMS PRO 아이언, 윌스 STAFF MODEL CB 아이언 구매 시 5만 마일리지를 추가 제공하는 단조 아이언 구매 마일리지 행사도 실시된다. 오디세이 퍼터 2·BALL TEN RED 시리즈도 클리어런스 특가로 구입할 수 있다. 미즈노 JPX S30 아이언 또는 MX-1 아이언 구매 시 스탠드백, PRGR 21 LS 시리즈 100만



원 이상 구매 시 경량 캐디백이 증정된다. 풋조이 PURE 골프백은 골프존마켓에서만 만날 수 있다. PRGR 21 LS 시리즈 남녀 드라이버, 우드, 유틸리티, 스틸 8 아이언 등도 특별가로 판매된다. 이종우 골프존커머스 오프라인사업부 상무는 "이번 시즌 골프 라운드를 새롭게 준비하시는 골프존마켓 고객분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골프존마켓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골퍼들의 즐거운 골프 생활을 위해 더욱 다양한 프로모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골프존마켓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APP), 골프존마켓 SNS 채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선욱기자

코로나로 미룬 결혼식...12년 만에 혼인 건수 반등하나

통계청, '2023년 혼인·이혼통계' 발표



혼수비용과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11년 연속 감소하던 혼인 건수가 늘었는지 주목된다. 16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19일 통계청은 '2023년 혼인·이혼통계'를 발표한다. 혼인·이혼통계는 지난해 전국 시·구청과 읍·면사무소에 신고된 혼인신고서와 이혼신고서를 기초로 혼인 건수와 이혼 건수 현황을 파악해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결혼은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혼인 연령이 과거에 비해 늦어지면서 혼인 건수는 2012년(32만7100건)부터 매년 감소해 2022

만된다. 2022년 남녀 초혼연령은 남자 33.7세, 여자 31.3세로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았다. 2020년부터 3년 연속 감소하며 2022년 10만건(9만3200건) 아래로 떨어졌던 이혼 건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가 늘고 있지만 경기 침체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통계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KDI 포커스'를 통해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을 내놓는다. 중장년층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러시와 평균 수명 증가 영향으로 고용시장 진입이 활발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다. 중장년층의 빈번해진 일자리 이동과 더불어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지 관심이 쏠린다. 21일에는 통계청이 사회·환경·경제 각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통계 데이터로 진단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4'를 발간한다. 뉴시스

년에는 19만1700건까지 줄었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40만건에 육박하던 혼인 건수는 2000년 들어 30만건 초반으로 떨어졌고, 매년 줄면서 코로나19 기간에는 결혼식을 올리는 것도 자유롭게 못하면서 2022년에는 1970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이 같은 흐름에 변화가 예상된다. 코로나19로 결혼을 미룬 예비부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상반기 결혼식을 집중적으로 올리면서 전년도보다 2000건 정도 늘었을 것으로 잠정 집계됐기 때문이다. 혼인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12년 만이다. 다만, 결혼 연령은 더 상승했을 것으로 전



현대차·기아, 글로벌 친환경차 누적 500만대

현대차와 기아의 글로벌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이 15년 만에 500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현대차·기아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해까지 총 499만5891대의 친환경차를 판매했다. 친환경차는 전기차(EV)를 비롯해 하이브리드차(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수소전기차(FCEV) 등이 포함된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1월 11만1841대를 합하면 친환경차 판매 총 대수는 510만7732대에 이른다. 지난 2009년부터 친환경차를 판매하기 시작한 것은 감안하면 15년 만에 판매 500만대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136만1476대의 친환경차

를 판매하면서 2년 연속 글로벌 판매 100만대를 돌파했다. 지난해는 2022년(102만1139대 판매)보다 33.3% 증가한 판매량을 기록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이 팔린 친환경차 종류는 HEV로 295만대로 57.8%를 차지했다. 이어 EV 157만대(30.8%), PHEV 54만대(10.6%), FCEV 3만8000대(0.8%) 등 순이었다. 친환경차 최대 판매 모델은 니로 HEV로 60만6000대였다. 이어 투싼 HEV(35만6000대), 코나 일렉트릭(33만2000대) 순으로 많이 팔렸다. 아이오닉5는 29만대가 판매됐다. 현대차·기아는 올해 다수의 전기차를 추가하고 상품선 개편 모델을 출시하며 친환경차 라인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슬비기자